

보도 일시	2022. 1. 13.(목) 09:00	배포 일시	2022. 1. 13.(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2712)

예술 분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 1. 13. 문체부 장관, '22년도 예술의 산업화 관련 정책 수요자와 현장 소통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13일(목) 오후 3시, 예술가의 집(대학로 인근)에서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예술단체 관계자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예술 분야에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예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약 345억 원 규모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아트컬처랩’ 조성, 예술기업에 특화된 해외 진출 지원, 예술산업 전문인재 양성 등

문체부는 올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예술기업과 단체들의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재원 160억 원을 투입해 ‘아트컬처랩’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트컬처랩’이 조성되면 예술과 기술의 결합 등 새로운 예술작품과 활동 관련 창업·창직과 창·제작, 교류·교육, 유통·시연 등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술기업과 사회적경제 단체들을 대상으로 약 8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상담(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기업에 특화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22억 원을 투입, 한국예술의 한류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 자금, 세계 예술시장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예술산업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해 약 3,3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작년 4월에 개설한 ‘아트모아(AR+ More)’를 통해 예술 분야 취업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일자리 추천 등 기술기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술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 약속

황희 장관은 “예술 현장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의 산업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예술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는 예술도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인 협업, 다른 분야와의 활발한 융·복합 등을 통해 국내외 예술시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며, “예술기업과 단체들이 더욱 많은 시장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소재 개발과 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다양한 정책과 예산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예술인, 예술기업 관계자 등 예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2022년도 예술의 산업화’ 사업 추진계획(안)



◆ **지원규모 확대 : ‘21년 146억 원 → ‘22년 345억 원 (136%↑)**

- (목적) 예술기업·단체 성장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예술산업 생태계 조성
- (방향) '아트컬처랩' 조성, 예술특화 해외진출 지원 등 현장맞춤형 신규 지원을 통해 예술 창·제작, 국내외 유통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체계 구축

□ **[창작 공간] 예술 창작특화 공간 ‘아트컬처랩’ 조성**

- (종합지원 공간)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한 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조성('22년 신규, 160억 원)
 - ①창업·창직, ②교류·교육, ③창·제작, ④유통·시연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

구분	주요기능	공간구성
①창업·창직	비즈니스 센터	·전문가 상담·컨설팅(경영일반·투융자·법률 등)
	예술기업 입주 공간	·7~12평형(5인 내외 규모), 15~20평형(10인 내외 규모) 입주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등
②교류·교육	교육 공간	·예비·현업 종사자 대상 전문역량 교육 (가변형 강의실 2~5인, 10인, 20인, 50인 규모별)
	네트워킹·교류 공간	·가변형 행사공간, 팝업스토어
③창·제작	창·제작 스튜디오	영상음향 스튜디오, 자료실, 워크룸 등
④유통·매개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연·유통	블랙박스형 행사 공간(시제품 고객검증, IR행사 등)

□ **[예술기업 육성] 창의적 예술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단계별 맞춤지원) 예술 분야 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예비(창업 전)-초기(창업 3년 미만)-성장(창업 3년 이상) 단계별 지원(80.6억원)

구분	주요내용
예비 (창업 전)	-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 예술 특화 창업교육
	- 창업자금 지원(최대 1.5천만원) - 현장 맞춤형 멘토링 등
초기 (~창업 3년)	- 예술기업 15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10개
	- 시장진입 단계 맞춤형 교육 - 초기 투자자본 유치 자문 지원
성장기 (창업 3년~)	-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 사업화 고도화 컨설팅
	- 사업유형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 전문 투자유치 지원
	- 사업 확장자금 지원(최대 1억원) - 사업 도약 컨설팅
	- 예술기업 15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10개

- (세계 도약 지원) 예술기업 해외 진출 특화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검증 및 세계적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22년 신규, 22.5억원/30개사)
- 해외진출 사업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세계적 기업 및 육성 기관 (액셀러레이터) 협업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구 분	지원 대상	주요 내용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진출 성장성 및 진출 계획 검증 기업	- 사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 - 교육·컨설팅, 멘토링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강화 지원 -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 외부 자원 연계 포함 종합 지원
글로벌 판로 지원	해외 시장 대상 판매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2천만 원) - 해외 온오프라인(클라우드펀딩, 국제 박람회 등) 판로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투자 유치를 위한 IR 기회 제공(정기 및 수시 IR 피칭) - 비즈니스 미팅 지원(온·오프라인 투자자 미팅 연계 등)

□ [현장 교육·매칭] 종사자 교육 및 일자리 연결 확대

- (종사자 교육) 예술산업 종사자의 실무역량 강화, 미래인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11억 원)

- (미래인재/예비종사자)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커리어디자인, 기획서 작성, 예술기업 프로젝트 워크숍 등) 운영(4억 원, 300명)
- (실무·전문인재/현업종사자) 개인·조직(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창업, 조직경영, 융합, 리더십 과정) 운영(7억 원, 3,000명)

- (일자리 연결) 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누리집 '아트모아' 시스템 고도화*로 구인·구직 연결 활성화(7억 원)

* 기술기반 지능형 정보서비스(일자리 추천 등) 고도화 추진



< 아트모아(AR+ More) '21년 4월~ >

- (구성) ▲ 일자리·인재 정보(장르별·업종별·지역별 검색), ▲ 기업·직업 정보, ▲ 뉴스자료, ▲ 회원 커뮤니티 등
- (현황) ▲ 방문자 258만 명, ▲ 채용공고 2,590건, ▲ 개인 회원 3,182명, 기업회원 912명 달성